

보 도 설 명 자 료

(22. 8. 29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수출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재생에너지
사용시 인센티브 강화, 직접PPA 본격 도입 등 원활한
RE100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계획

(8.29일자 국민, 경향, 한겨레 등 「“재생에너지로 제품 만들어 달라”
대기업 3곳 중 1곳 압박 받는다」 보도에 대한 설명)

1. 기사내용

- ☐ 한국 제조 대기업 3곳 중 1곳은 글로벌 고객사로부터 재생에너지
사용 압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
 - 기업들의 RE100 참여에 가장 큰 애로사항은 비용부담(35%)이며,
제도 및 인프라 부족(24%), 정보부족(23%) 등을 지적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

- ☐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수출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**원활한 RE100
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나갈 계획**임

- ① 먼저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인 높은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
재생e 사용에 필요한 **실제 프리미엄(30~50원*/kWh)보다 낮은 녹색
프리미엄(10원/kWh) 판매**로 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있으며,

* REC 구매비용, PPA 등 사용시 전기요금外 부담비용 등

- 추가적으로 RE100기업 대상 **세제·부담금 감면, 시중 금리 및 보험
우대 등 각종 인센티브를 강구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**해 나갈 계획

- ② 이행제도 관련, 발전사업자-RE100기업간 자유로운 전력구매계약이
가능하도록 **직접 PPA제도를 9월중으로 도입할 예정**임

- 직접PPA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등의 거래
편의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

- ③ 기업들에게 신뢰있는 정보제공 위한 전담창구인 「**RE100 컨설팅
DESK**」를 설치하여 RE100 관련 **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**하고,

- **주기적인 기업설명회** 등을 개최하여 기업과의 소통을 원활히
진행해나갈 계획임

- ☐ 한편 기업들의 **재생에너지 사용물량 부족이 없도록** 현재 6.3%
수준인 **국내 재생에너지 비율을 중장기적으로 지속 확대**해 나
가는 한편,

-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 재생에너지 **비용의 인하**를 유도하고, 기업
들의 애로를 청취하면서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음

※ 문의 : <산업통상자원부>

재생에너지정책과 이재식 과장(044-203-5360) / 김범수 사무관(5361)
전력시장과 강경택 과장 (044-203-3910) / 전두영 사무관(3912)